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들에게만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었던, 비 전염성 만성 퇴행성질환(성인병)이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성인병 예비군 또는 약년성 성인병이라고도 불리우는 어린이 성인병에 대하여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자료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린이 성인병,

왜 관리해야 하는가 !

– 어린이 성인병 예방검진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

그동안은 어른들만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던 성인병이 최근 들어 어린이들에게서도 발견, 증가되어 소위 성인병 예비군 또는 약년성 성인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어린이 성인병이란 대체 무엇인가.

본회(예방의학사업중앙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작년부터 연구사업으로 각 지부가 참가하여 조사사업을 벌이고 있는 바, 지난번 동경에서 개최된 전국운영회의 석상에서, 일본대학의학부 大國眞彦 교수로부터 「소아 성인병 예방 검진에 관한 연구」에 대한 강연을 듣고, 그에 의거하여 왜 어린이 성인병을 문제로 삼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하여 콜레스테롤을 중심으로 하여 해설해 보고자 한다.

1. 어린이 성인병이란

‘성인병’은 지금까지는 어른들에게만 걸리는 병이며 어린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위, 어린이의 성인병 예비군이라는 것이 생겨, 현실적으로 어린이 때에 예비군을 거쳐 당뇨병이나 위궤양이 발현되는 등 성인병 어린이가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이와같은 어린이의 성인병에는 ① 선천성의 심질환이나 각종 내분비대사성의 질

환, 신질환 등이 어린시절부터 계속되는 것과 ② 성인의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인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이나 만성신염, 당뇨병 등이 어린시절부터의 생활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 ③ 성인질환이 어린이 시절부터 발증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①에 대해서는 종래의 유유아(乳幼兒) 검진이나 학교검진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②에 대해서는



어린시절부터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발증을 예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의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의 성인병 예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7년경으로, 그때 일본 후생성에 연구반이 생겨 각종 자료가 모이게 되면서부터이다.

또, 일본학교보건회에서 처음에는 지질당대사위원회가 생겼다. 그로부터 약년 성인병예방위원회 등이 생겨나며 제법 크게 연구가 진척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에 의하면 내년쯤에는 모르기는 해도 후생성에 커다란 연구반이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와같은 연구에 대해서는 문부성, 후생성 등이 힘을 써 줄 것이라는 것과 국회에서도 성인병예방의 의의에 대한 질문이나 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지에서 점차로 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어른에게만
걸리는 병으로 알려졌던
성인병이 최근에는
어린이에게서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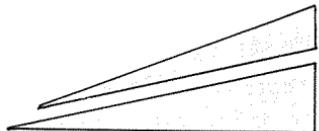
심장검진에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은 1957년에서 1958년 경으로, 학교보건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심장검진이 법령화된 것이 1974년이고 지방교부세가 부가된 것이 1988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체계가 정착되기까지는 약30년이 걸렸다고 보아야 된다.

어린이 성인병검진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의외로 빨리 보급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미국수준으로 올라가는 성인병

동맥경화라는 것은 동맥의 혈관의 벽에 지방이 침착하여 어느정도 퇴행되어 물때가 끼이는 것과 같이 그 내측이 좁아지는 병이다.

동맥경화는 조용한 질환이라고는 하나 동맥경화에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 지방



어렸을 때부터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혈압이 높다든가 하는
위험인자들을 미리
예고해두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

침착의 단계, 그 자체가 진행되는 섬유화의 단계, 더욱 진행하게 되면 혈관이 내측이 좁아지고 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예방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것이다.

후생성의 개인동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사망율, 이환율이 아주 높은 것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동맥경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그중에서도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율은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 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미국에 비교해서 허혈성심질환 보다 심근경색, 협심증에 의한 사망율은 꼭 적으나, 문제는 중년남성의 허혈성심질환의 이환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20년, 30년 후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큐우슈우대학과 후생성에서의 어린이 약

년자의 동맥경화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 10대 어린이 98%에서 적어도 지방침착 등 동맥경화의 초기병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8%라는 것은 거의 다를 의미한다. 누구에게나 거의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 일본도 도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혈압이 높다든가 위험인자가 많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두지 않으면 모르는 가운데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따라서, 성인병검진은 모든 위험인자를 체크하여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있다. 마희연 역

예방의학저널 '89. 9. 15. 자 231호 전재